

반짝반짝 빛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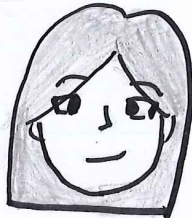
별빛반 이야기



애나별



김승현



김아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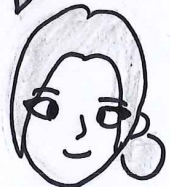
김예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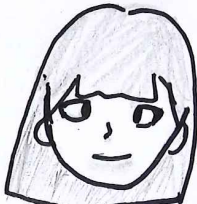
김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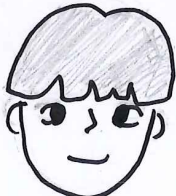
민지후



박서현



박수연



박하울



설하연



안수현



엄재민



오주아



윤태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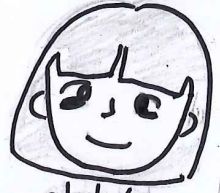
이정재



이지민



이찬희



이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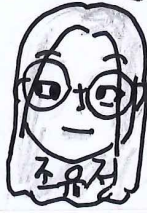
이한별



이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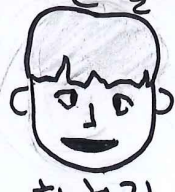
조연아



조유진



조효승



한하람

문학초 4-4

목 차

1. 나를 소개합니다

2. 소중한 나의 일상 이야기

신나는 워터파크 -----	김지후
캠핑 -----	조연아
가족 여행 -----	김아민
찜질방 -----	애나벨
발로란트에 처음 현실한 날 -----	박하울
할아버지 집 -----	이한별
여름방학 때 할머니 댁에서 -----	민지후
가족 여행 -----	안수현
행복한 추석 -----	엄지민
가족 여행 -----	조효성
필리핀 -----	오주아

3. 마음을 담은 편지

엄마, 아빠. 사랑해요 -----	이지민
하린이에게 -----	김승현
엄마, 아빠 -----	설하연
지오에게 -----	이찬희
아버지께 -----	이한비

4. 상상의 세계로

욕심 많은 소나무영감 -----	한하람
연못 속 너와 나 -----	이해리
꿈에서 공룡을 만나다 -----	김예준
신기한 인형 -----	조유정
○○이라는 꿈을 가지고 -----	박수연
만약, 내가 세 가지 소원을 빌 수 있다면 -----	이정재
만약, 우정이 더 끈끈해진다면 -----	윤태빈
나의 꿈 속 이야기 -----	박서연

5. 친구 이름으로 삼행시

6. 함께 만드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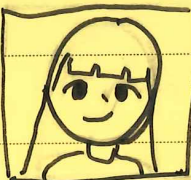
1. '나'를 소개합니다 ~



이름: 김하림
 성별: 남자
 생일: 5월 13일
 취미: 그림
 잘하는 것: 그림



이름: 김승현
 성별: 남자
 생일: 2014년 3월 8일
 장래희망: 군인



이름: 박수연
 생일: 1/8
 장래희망: 웹툰작가
 취미: 그림그리기
 잘하는 것: 그림그리기
 특징: 그림을 잘 그린다



이름: 이찬희
 특징: 게임을 잘한다
 취미: 운동, 게임, 놀기
 잘하는 것: 게임, 달리기
 자전거 타기
 좋아하는 음식: 라면, 김치
 부엌생활



이름: 김지후
 생일: 4월 30일
 성별: 남자
 꿈: 경찰관
 취미: 자전거 타기, 야구하기, 게임하기
 좋아하는 음식: 치킨, 피자, 라면
 좋아하는 색깔: 블루, 블랙, 화이트, 레드



이름: 김예준
 생년월일: 2014.9.2
 취미: 자전거타기, 꿈: 자전선수
 좋아하는 음식: 마라탕, 떡볶이, 라면
 가족관계: 나, 아빠, 엄마, 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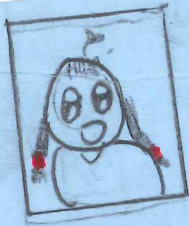
(이름) 이하연 (나이) 11살
 (생일) 2014-12-13 (만들기-그림)
 (가족관계) (좋아하는 연예인) 아바-엄마-나-동생
 아이브레이 (꿈) 미술선생님
 (좋아하는 음식) 냉면-고기 (관심있는 것) 만들기



조유정입니다.
 생일은 7월 2일입니다.
 특징은 그림을 그릴 때 머리를 크게 그립니다.
 취미는 가만히 있기. 잘하는 것은 어바2(?), 좋아하는 음식은 오징어입니다. 좋아하는 색은
 전 그룹은 뉴진스입니다.



이름: 설하연
 생일: 2014.12.24, 12월 24일
 나이: 11살
 가족관계: 아빠, 엄마, 누나, 오빠, 빈
 취미: 만들기
 좋아하는 음식: 구기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유



이름: 이한비

생일: 12/23

생김새: 머리 풀면
나름 이쁘장함

잘하는 것: 막춤추기, 칼랑바등

키: 153cm 장래희망: 커와

이한 아이돌로 좋아하는 연예

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 . 한비가 쓴 거



이름: 이정재

생일: 09/12

좋아하는 음식: 슬러시

잘하는 거: 종이접기

가족관계: 엄마, 아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좋아하는 연예인: 이정재



이름: 조호성

생일: 9/30 가족관계

좋은 ☺

특징: 화가기 쉬움

취미: 놀기 잘하는 것

게으름 좋아하는 만화, 음악,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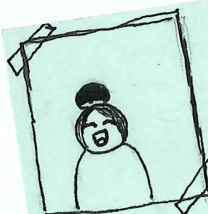
이름: 박하윤

특징: 키가 크다

좋아하는 음식:

햄버거 꿀맛 문구책

취미: 개미잡기



이름: 오주아

생일: 2/26

성별: 여자

취미: 바이올린, 그림그리기

좋아하는 연예인: 제로베이스원(ZB1)

성격: 호랑이같다

좋아하는 음식: 김치만두, 김치전, 피자, 떡볶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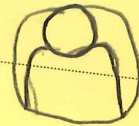


이름: 애나벨 생일: 여자
생일: 09/15 취미: 육상

좋아하는 아이돌: 세븐틴♡

꿈: 육상코치님

좋아하는 음식: 마라탕



이름: 윤태빈

생일: 5월 29일

나의 꿈: 사육사

나의 취미: 노는 것

조화하는 연예인: 유재석



이름: 김아민

생일: 8/18

좋아하는 음식: 마라탕

좋아하는 연예인: 한유진

장래희망: 미용사 / 댄서

취미: 머리 묶어주기 / 춤추기



이름: 민지호

생일: 4월 10일

특징: 다리기 빠르다

좋아하는 음식: 라면

취미: 운동, 놀이

가족: 아빠, 엄마

잘하는 것: 다리기, 운동, 놀이, 그림 그리기

생김새: 뽀빠 머리

꿈: 농부, 축구 선수



이름: 엄지민

생일: 2014. 1/28

취미: 먹기

꿈: 애견 미용사, 수의사

좋아하는 연예인: 제로 베이스원

'15'를 소개합니다



이름: 조연아 / (여자)
 생일: 5/23
 특징: 작은 키
 좋아하는 것: 태권도
 장래희망: 경찰
 가족관계: 엄마, 아빠, 나, 오빠, 공작(강아지)
 생김새: 단발머리 / 안정감
 좋아하는 음식: 산낙지밥



이름: 이해리
 생일: 2/22
 성별: 여자
 가족 관계: 엄마, 아빠, 동생, 나
 좋아하는 음식: 오이, 메론, 복숭아
 싫어하는 음식: 당근, 양파
 장래희망: 변호사 + 판사
 취미: 만들기, 노래 부르기



이름: 이지민
 생일: 10월 13일
 특징: 노는 거
 좋아하는 음식: 마라탕, 떡볶이
 장래희망: 과학자



바서면
 생일: 1.7
 특징: 인형을 가지고 다니다
 좋아하는 것: 인형, 폰, 웹툰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 당육류
 취미: 그라 그리기, 웹툰 보기
 장래희망: 웹툰 작가



안동현
 생일: 10월 6일
 좋아하는 음식: 스키(호빵), 소고기, 돼지고기, 치킨, 피자, 리
 장래희망: 100만 뷰툰

2. 소중한 나의 일상 이야기

신나는 워터파크



4학년때 워터파크를 가본적이 있다.

워터파크를 가기 전날 너무 기대했다.

자고 일어나서 신나는 워터파크 가기를



준비하고 워터파크를 갔다. 워터파크를

가서 파도풀에 가서 파도를 탔다.



그리고 유수풀에서 놀다가 밥을 먹었다.

그리고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닥터 피쉬



체험을 하고 야외에서 놀다가 집에가서

잠을 잤다. 그날 밤은 꿀잠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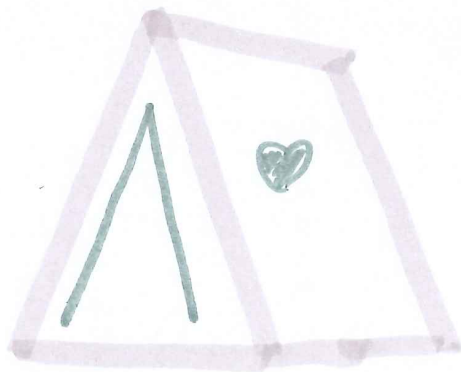
-김지후-

2024년 9월20일 금요일

< 캠핑 >

쟁쟁- 해가 내리쬐던 2024년의 여름, 우리 가족은 캠핑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출발 할 시간이 되어, 차를 타고 목적지에 다달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하셨다. “드디어 도착이네.” 너무 신난 내가 말했다. “히히 재밌겠다잉” 시간이 지나, 4시가 되었다. 그러곤 난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걸으려고 텐트에서 나와, 신발을 신고 길을 걷고 있었다. 길을 걷고 있을 때, 옆편 호수에서 청둥오리도 보고, 어머니와 사진도 찍고, 예쁜 꽃을 발견해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다시 텐트로 들어갔다. 또 시간이 지나, 잘 때가 되었다. 그러곤 행복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잤- 잤- 맑은 공기, 새벽 새 소리 편안한 마음으로 일어나, 텐트를 나와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너무나 행복한 어제, 오늘이었다.

조연아



텐트



모닥불

-END.-

<가족 여행>

김아민



내가 조그 졸라 여행을 가게 됐다.

너무 즐거워 잠도 못잘정도로 신났다.

여행머리 소리를 뻐뻐 지르며 내입은
수지 않았다. 자랑을 하고 다니기 때문은

여행은 3박4일을 간다. 그리고 여행 당일날
너무 신나서 춤, 노래가 저절로 나왔다.

짐을 다싸고 여행을 출발한다. 중간중간에
덜미가 나긴했지만 잠을 자 조금 관

찮았다. 카라반숙소가 도착할때 나는 빨
리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수영장이 조금 낮아서 돌게 없었지만 미
그럽듯이 있어 신나게 놀았다. 그리고

다음날 실매가 있어 그걸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 다음날 다음 풀장을 가려

고 하는데 사장님이 흥기를 하고 있는데
4등이 나와서 선물을 받고 차를 타고

갔다. 펜션에 도착한 빨리 수영복으로
갈아 입고 수영장으로 들어갔다. 물속이 깊어

더 재미있었다. 수영은 다하니까 라면도
먹고 잤다. 더 못가게 해서 아쉬지만
재미있었다.

< 짬뽕방 >

애나별!

일주일 전 쌍둥이어머니께서 짬뽕방을
친구들과 같이 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말을 듣고
친구들과 나는 기뻐했습니다. 당일 날
짬뽕방을 갔다. 근데 거기서 나만 짬뽕방에
처음 갔었다. 짬뽕방에서는 냉방을 갔다가
뜨거운 방으로 갔다. 점심에 잘 익은 라면과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다. 점심을 먹은 뒤
무엇도 놀지 편하게 헬스장이 있는 곳으로
갔다. 거기에는 나보다 더 나이가 적은 아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나는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았더니 헬스장 안으로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끼니 너무들! 여기는 어린이는 들어오면
안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앞에 나보다 나이가
적은 아이들도 있었는데 친구들과 나만 처벌한다는 생각으로
헬스장에서 나왔다. 헬스장에서 나오자 친구들과 나는
짜증난 상태였다. 나는 그 이후부터 시디를 날리는 방법
배웠습니다.

<발굴관트에 처음 현결 한 날>

박하울

→ 그때 정말 기뻐했다. 사람들이 내가 현결한 것을

다같이 보고 그 사랑과 친구도 하고

다같이 사느 기뻐했다. 그리고 현결의 맛을

보내는 아빠에게 또 현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빠는 허락을 해주셨다. 내 인생에서

3번째로 기쁜 날이었다. 앞으로 내가 커서도

현결을 할거다.

< 할아버지 집 >

이한별

저번주 금요일에 할아버지댁을 갔다. 새벽 3시

쯤 문포의있는 민족언니를 ^{할아버지} 태워진도로 갔다. 4시 30분

에 진도에 있는 할아버지댁에 도착하였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잠을 청했다. 아침 10시에 일어났다.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들어가니 TV는 켜져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으셨다. 그래서 TV를 보았다.

할머니가 오셨다. 그래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민족언니

랑 놀았다. 그리고 저녁! 삼겹살을 먹었다.

마지막! 난 아침, 정식을 먹고 오후 1시쯤 인체의있는 집으로

향했다. 집에 12시쯤 도착했다 정말 힘든 하루였다!!

이한별

2024-9/23 일

제목: 여름 방학 생활 할머니 댁에서

-민지후-

나는 엄마와 아빠와 같이 안가고 할머니집으로 간다.

나는 할머니집에서 학교 숙제를 아침에 매일하고 다 끝내면
운동을 한다. 그런 다음에는 아침밥을 먹고 할머니 집밖에서

축구 연습을 한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닌테도를 하고 눈밥

로 라면을 먹는다. 밥을 먹고 다음 큰삼촌과 신나게 놀다가 샤워하

고 감을 청한다. 아침에 숙제하고 운동한 다음 아침을 먹고 큰삼촌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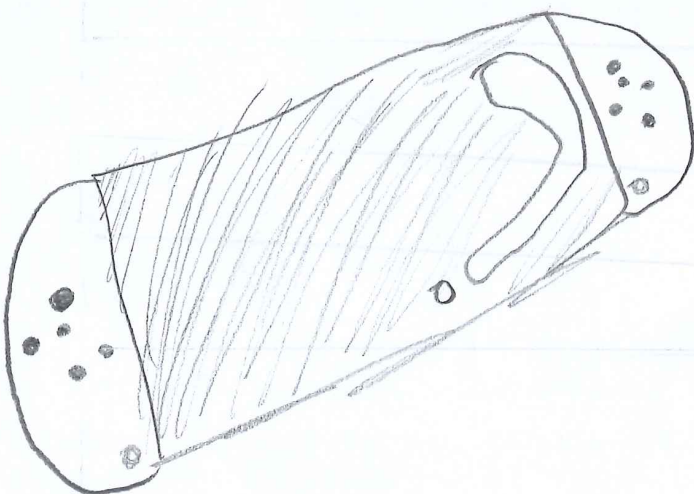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같이간다. 놀고 온 다음 신

제밥을 큰삼거사를 먹고 닌테도를 하고는 도양치료를

받는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조금 심심해서 운동하고 아침밥

을 먹고 숙제를 한다.

나름 알찬 여름방학이다.



< 가족 여행 >

안수현

우리 가족은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호텔에 갑종비를 한다. 너무 ძ얼린다.

도착하는데 3시간이 걸린다. 호텔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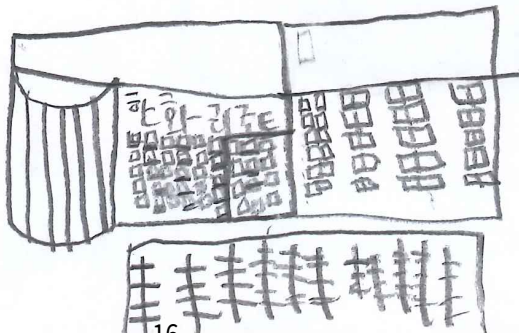
들어가 봤는데 너무 좋았다. 호텔에

서 구경을 하고 밥을 먹었다. 그리고

보트를 사서 호수로 놀러 갔다. 호수에

와서 물이 맑고 깨끗했다. 물고기도

있다. 너무 좋다.



< 행복한 추석 >

엄지민

추석 전날, 할머니 댁에서 전을 부치고 김을 돌아
왔다. 집에 발을 디디는 순간 많 강아지들이 쫓고
아빠께서는 강아지를 내라. 집안일 하라 바쁘셨다.
“그래서 뭐 입을 건데?” 엄마께서 옷을 뒤적이며 말
씀하셨다. “몰라. 그냥 엄마가 골라줘.” 추석 당일 새벽
6시 “아가들 많 이제 일어나야지?” 엄마의 목소리를 듣
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불일 보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나
왔다. 준비를 하고 “너네 뭐 놓고 온 거 있지? 이제 가자” 아빠
에 날카로운 목소리에 다시 준비물을 확인해 보는 나였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손 씻을 틈도 없이 제사를 지냈
다. 제사가 끝나고 아침밥을 먹었다. 기나긴 시간이 지나
고 사촌들이 고기 시작했다. 사촌들과 같이 코인 노래방에
갔다. 신이났다. 어느덧 저녁 9시 27분. 사촌과 헤어지고
집으로 갔다. 손 씻고 그냥 뻘었다. 엄청 행복했지만 엄청 피곤
하기도 했다.

<가족 여행>

아빠 차 타고 뽕삼 먹은 권이가 눈 때문에 이따갈았다.

권에서 <뽕삼 마켓>에 갔다. 거기서 고기도 굽고 뽕삼 먹었다.

제 애서 다 처음에 엄마가 나갔다고 하냐. 뽕이

오네. 어지럽게 보였나 클라 먹고 다시 돌아왔다.

그 때, 조효진도 체했다고 했다.

난 그래도 밥을 많이 먹었다. 다 먹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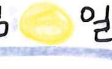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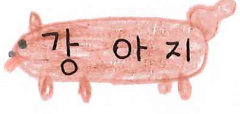
을 가리크리고 다이소도 갔고 품 품 러스 에도 갔다.

바음 거 한 여행이다.

- 조효진 -

<필리핀>

-오주아-

어느날 갑자기  엄마가 오랜만에 필리핀에
간다고 했다. 마침 필리핀에 안가본지
 오래 되어서 조금 설렘다.  친척들에게 줄
 선물도 미리 준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택시를 타고 인천대공항으로
갔다.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도착하자
마자 뜨거운  햇볕이 나를 반겼다.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강아지 8마리가
나를 반겨주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금방  친해져 같이 놀았다. 보라카이  섬에
갈뻔 필리핀가기전보다 더 준비했다.
우리는  배를 타고, 사진도 찍었다. 보라카이
 바다는 매우 맑고  개꺾었다. 필리핀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친척들과  사진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  한국에 벌써 도착하니
아쉬웠지만! 좋은 여행이었던것 같다 

3. 마음을 담은 편지

<엄마,아빠 사랑해요>

이지민

엄마아빠께

엄마,아빠! 저를 낳아 주셔서 감사해요.

저에게 맛있는걸 사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건강하게 키워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to. 하린이에게

ㅎㅎ하린아! 저번에 놀았던 때 기억나니?

그 때 너 덕분에 재밌었어. TV도 보고

수영도 했었지? 참 재미있었어. 다음부터

도 재미있게 놀자! 그리고 우빈이랑 게임도

많이 하자.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도

놀자. 그리고 많이많이 놀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이 사줄게. 그럼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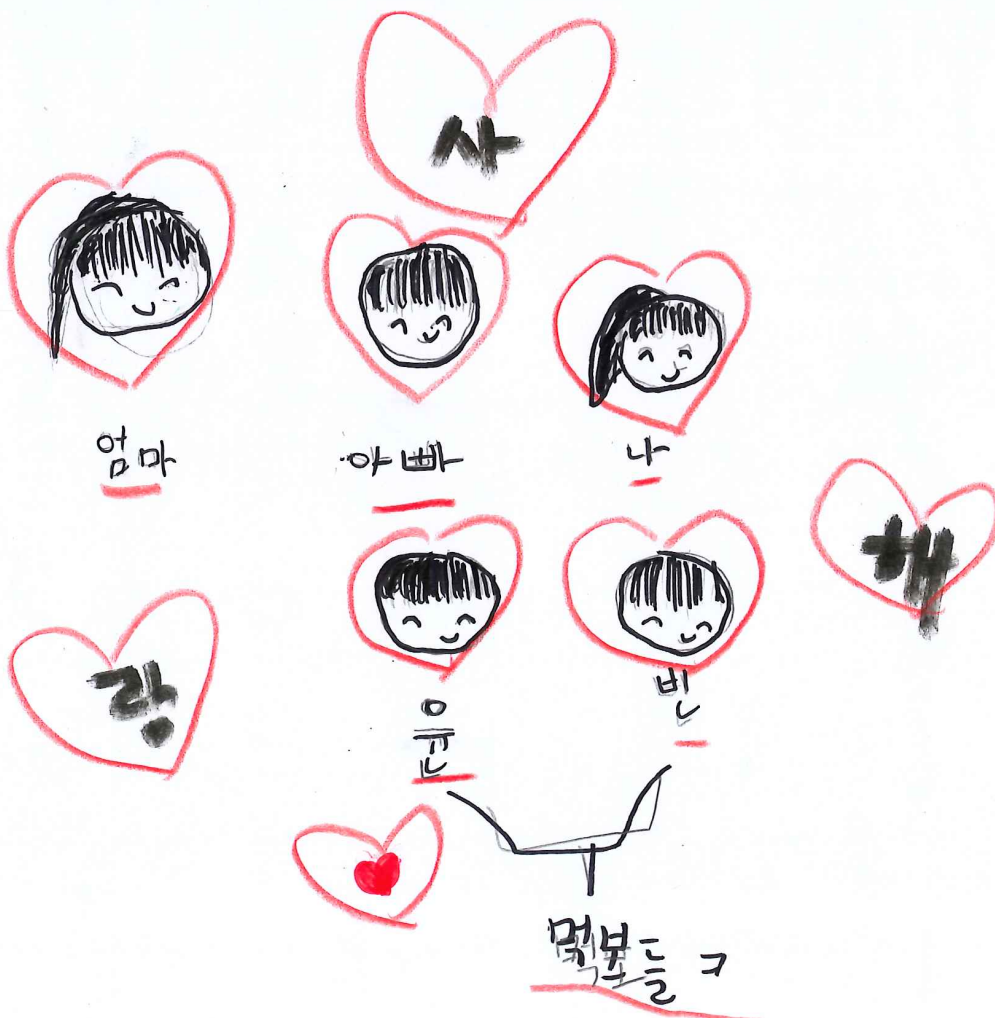
2024년 9/20

승현이가

☆ 엄마, 아빠, ☆

설하면

엄마 아빠 나 하얀이야 날 놓아 주셔서
고맙고, 키워 주셔서 세고맙고 난 위해 노력하고, 엄청
고맙고 난 위해 키워 주셔서! 무당 탕사고만 해서
미안 해요! 마지막으로 힘들게 키워 주셔서 고맙고
잘라 해요. ♥



To. 지오에게



지오야! 나랑 친구해줘서 고맙고

너랑 놀때마다 재미있어. 그리고 너랑

게임 할때 마음이 좋아맞기도 하지만,

랭크가 떨어져도 이번 에 화를 참을테니까

신경쓰지 않아도 돼. 앞으로도 재미있게

놀이 잘 지내보자! 2024/09/23 찬희가

「 아버지께 」

아빠 안녕하세요! 저 한비예! ♡

일단 초면에 죄송하던 마음을 드려요,

그 이유는, 제가 맨날 아빠께 화내

고, 틱틱대서요, 물론 아버지도 아

시겠지만요, 시늉기가 일찍와서 그렇고, 피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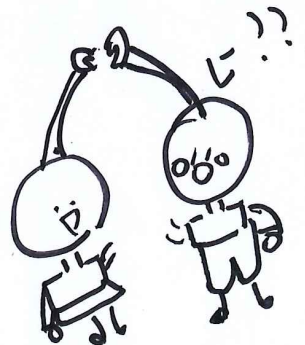
민감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노력하고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노력할게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8) ♡ (9)

9/20 중 한비예



4. 상상의 세계로

제목: 욕심 많은 소나무영감

글: 한하람

옛날 옛적 소나무 처럼 생긴 허리를 가진 욕심 많은 영감이 있었어요. 그 영감은 욕심도 많았지만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영감은 틈만 나면 시비글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영감은 틈만 나면 시비글 거는 제 특장이었죠. "여기 사람들은 왜 저지처러다니는지 쭈쭈." 걸어 가던 청년이 말하네. "뭐요?" 그걸 보던 산신령님은 영감 곁에 들어가서 말하네. "앞으로 3번 이상 시비글 걸면 년 소망이 된다." 영감은 벌떡 일어나 말했어. "원수 리야 난게 속 시비글 꺼야!" 그리고 나들이 지났지요. 영감은 벌써 2번 걸었지요.

영감은 말했지요. "이아 줌마는 왜 이러게 못생겼어." 실수로 시비글 걸어 영감은 소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랑 많은 영감이 죽은 줄 알고 있는 많은 소나무)



연못속 너와 나

이해리

 숲속 근처를 걸어 다니던 나

가다가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연못**이었다. “그치만! 이 **연못**은

특별해.” 혼자 걸어 다니다 발견한 **연못**엔

다른 사람인 ‘**너**’도 있었기 때문!!

그러다 **서로** 눈이 마주치는데??

☺ 안녕? ☹ 안녕! 근데 뭔가 이상하다. **연못**에

들어가 보니 그 **친구**는 **없고** 물고기들만 잔뜩

있었다. 의아해하며 나갈려는데 **연못** 속에서

나를 부르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랑 놀자 가지마! 나는 무서워 **연못**에서 도망치듯이

빠져 나왔다. 과연 **내가 연못**에서 보 것은 무엇

일까요?



< 꿈에서 공룡을 만나다 >

- 김예준 -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에서 **공룡**이 나왔다. 공룡 중에는

작한 공룡과 **4분** 공룡이 있었다.

작한 공룡들은 내가 길을 잃수 있어서
길을 여 뵈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는

공룡들과 **많이** 친해졌다. 다른 공룡
들이 나를 공격하려 하면 나 대신

싸워 주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

3일 뒤... 나는 공룡들과 너무 친해진 **바람에**,

공룡 등에 타 **산책** 까지 갈 정도였다. 공룡들과
마지막으로 놀고 있는데 학교에 가야 되서

꿈에서 깼다. 나중에 또 이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

< 신기한 인형 >

조유정

인형이 있다. 인형을 흔들어 본다. 소리가 나면서

인형이 말한다. "어지러워!". 나는 인형이랑 놀다.

인형의 기분이 좋다. 인형의 볼을 만져본다. 인형이 "왜

내 볼을 만져?"라고 말했다. 참 신기하다. 한번 던져

본다. 인형이 소리 지른다. 안아본다. 숨 쉬는 것 같다.

인형이 팔을 흔들다.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어 본다.

인형이 내 과자를 바삭 바삭 먹고 있었다. 과자를

다 먹었더니 춤 추기 시작했다! 엄청 잘춘다! 나는 박

수를 짹짹 친다. 그러자 인형의 기분이 좋아졌다.

인형이랑 계속 놀았더니 밤이 되었다. 나는 인형을 꼭

안고 잔다.

<○○○> 이라는 꿈을 가지고

<박수연>



손님에 머리를
꾸미는



세상에는
많은 꿈이
있어 아직

꿈을 정하지
못했다면

여기서 골라
보자. ~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그림을 그리는
와가?

강아지를
예쁘게
꾸미는

애기
미용사?



나쁜 사람을
잡는

빵을 만드는

제빵사?

여기서 골라보. ~



< 만약 내가 세가지 소원을 빌 수 있다면 >

이정재

내가 만약에 세가지 소원을 빌 수 있다면

첫번째 소원은 로또1등에 당첨

되는것이다. 왜냐하면 집도 살수있고

인생 역전이 되기 때문이다.

두번째 소원은 학교방학을 2달 늘리

는것이다. 왜냐하면 게임도 많이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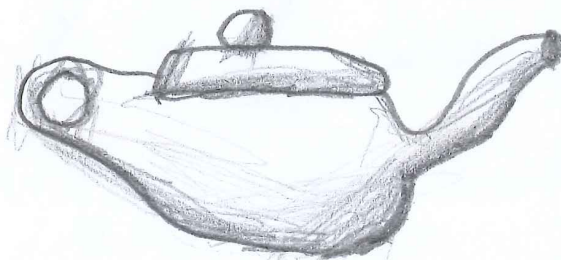
있고 많이 잘수도 있어서이다.

세번째 소원은 행복이다.

왜냐하면 내주변에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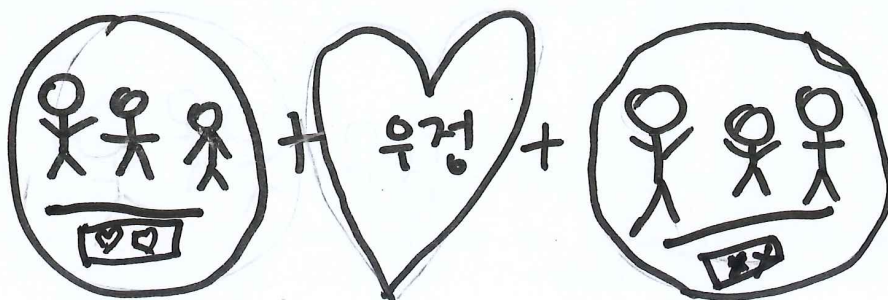
내 세가지소원은 이거다.



<만약 우정이 더 끈끈해 진다면>

작가: 윤태빈

나는 친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싸우리 안으면 친구들이
상처가 생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싸우리 안고 실천하기로 배우고 싸웠던 친구
끼리 화해하기로 했어요. 나한테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 이제 안싸울게요.
나는 그저 친구끼리 행복하길 빌었는 데
친구들이 이제 안싸워요. 그리고 우리의 우정까지
좋아졌어요. 그게 바로 실천이에요



<나의 꿈속 이야기>

박서연

나는 잠에 들었다. 앞도
그곳에서 눈을 떴다. 처음엔
놀랐지만 어젠 놀랄 것도 않는다.
나는 그곳으로 들어갔다. 꽃엔
신기한 꽃 전등이 많다. 저런
움직이는 연봉 먹으면 용돈이
돌아왔음식. 여기는 나의 꿈속 이야기.
나는 나의 꿈속을 관리하는 관리사대
유즈 계복 김영희라는 분이
이상한 민원을 넣는다 약간.
회전목마가 너무 핑핑
돌아가서 짜증나요.
라던가. 그래서 출입금지
시켰다. 그러자 한 3시간
쯤... 지났나? 그때
귀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다. "아 쉽지만 내일도 있어" 99

5. 친구 이름으로 삼행시 ~



오 우리처럼 귀엽고, 예쁘고, 착한



주 주아야옹 넌 정말 좋은

- 연아카 -



아 아인 것 같아. 우리 더 친해져보자옹♥



안 안경을 쓴



수 수현아옹



현 현재 넌 빛나옹

- 승현이가 -



김 승현은 남자다.



승 현은 옥상부를 등한다.

- 해리가 -



현 재 4-4 반이다.

 애정 많은 애나벨

 나 자신을 좋아하는 애나벨

-김리훅가-

 벨리가 같이 똑똑한 애나벨



윤태빈는 병원에 있고

투원하고는

비대근작으려간다

 유정

친구는 똑똑하다.

-민리훅-

 유정

정미는 그림을 잘 그린다.

 정미

말도 잘 그린다.

-효성이가-

 이로부터 멋진 당신은? ^-^

 차희 당신입니다.

 희망찬너!

-한별이가-

설²아연은

하¹얀얼굴이 있다.

연¹기¹갑¹이 아²양²대

-하¹얀이¹가-

하¹얀 하¹얀은

하¹얀 늘¹당¹만¹큼

하²얀 보¹쳐¹럼¹ 힘¹이¹써¹다

하¹얀¹스¹연-

조¹망¹한

효¹성¹이¹는

성¹실¹하다.

-하¹얀스¹연-

이¹한¹비¹지¹금¹너¹이¹름¹처¹럼¹너¹의¹모¹습¹이

하¹얀¹빛¹같¹고¹정¹말¹착¹하¹고

너¹미¹도¹잘¹지¹켜¹서¹너¹가¹좋¹아

-오¹주¹아-

이 등하리

-하림-

해 별저 럼 밝은 이 등하리

리 자로 ~~자~~ 시작 하는 미안해

이 한 별은

하 나 국에

변근 빛반이라는 4-4반 에있음 ㄱ -정재가 씀-

김 지후에게

지 후야

등 등 자전거 열심히 타자

-김예준-

김 예준은

예 의을 잘 지키고

준 비을 잘하는 김예준

-안수현-

이 정재곰

경 말...

재 발로 말 좀 들어줘요... 부탁이야. 엄지마녀

♥  김 아민은

♥  아 이돌처럼 춤을 잘 추고

♥  민 틀레 꽃처럼 귀엽다. - 쌤 -

♡ 바 씨로 태어나

수 수직선 ! 머리 따기를 잘하고

연 날 땀날 힘쓰는 친구 못지않다  - 한비 -

 민 망하거 말고

 지 거 알고

 후 웃 하 거 나 나

- 태 빈이가 -

엄 엄리 문

지 지미 이 저러

민 민정 패 이다 → 이 차 의

박 박 하 물은 우 주를 조 아 하 요

하 하 물이 는 멋 져 요 - 하 요 -

윤 이 름에 물이 들 어 가 니 이 름이 예 뻤 하 요

박 박 서 연 아 안 녕?

서 서 연 이 는 왜 개 귀 여 우?

연 연 예 민 가 는 아 뽕 ♡ - 지 미 이 가 -

조 연 아 는

연 연 꽃 같 은 - 애 나 뻔 -

아 름 다 운 연 아

이 이 뻔 고

지 지 미 좁 고 착 한 이 지

민 민 씨

- 유 정 이 가 -

6. 함께 만드는 이야기 ①

옛날 옛적. 꿀벌이 마을에 고돼지가 살고 있었어요.

고돼지는 길을 가다 나쁜 사람들을 만났어요. 고돼지는

새벌새에게 배운 주걱수를 사용해 사람들을 제압했어요.

그치만 나쁜 사람들은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 새벌새가 나타났어요. 새벌새가 삼각수를 써,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새벌새가 사

람들을 죽인줄 알고 이해했어요. 새벌새를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인죄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새벌새는 억울했어요. 고돼지는

새벌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예쁜 옷과 편지를 사서 드렸는데

새벌새 억울함이 풀렸 다. 억울함이 풀리자 마을 사람들은

새벌새에게 사과한다. 새벌새는 "괜찮아요"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감동한다. 그 후로 새벌새와 고돼지는 행복하게 살

라 하고 있다.

함께 만드는 이야기 : ②

어느 날 갑자기, 문학초 4학년 4반에 외계인이 나타났다. 그래서 4학년 4반

애들이 도망쳤었다. 근데 또 다시 외계인한테 붙잡혀서 혼쭐이 났다. 근데

이찬희가 근육맨이 되어 돌아왔다. 예준이가

오토바이를 가져와 외계인을 놀이터 뽕뽕이에게

태워 오토바이 속력을 느려뜨려 주기로 남았다.

외계인이랑 다른 외계인이 우편이 만나서 갑자기 커플이 되었다. 커플 외계인은 힘을

합해 다시 기를 모으고 별빛반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때 이찬희

가 기습했다. 그리고 이찬희가 별빛반과 외계인

은가기행성에 충돌하여 자기 행성을 부수고 외계인은 벌이 되었다. 잘가라! 외계인 